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0. 9. 3.(목)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	담 당 자	·과장 박병석, 사무관 서지웅, 주무관 최상립 ·☎ (044) 201-3901, 4576	
	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		·센터장 엄인섭, 팀장 오훈교, 차장 김정진 ·☎ (031) 5170-6010, 6031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재정-민자고속도로 교통관제 통합...안전·효율 높인다


- 3일 도로공사-19개 민자법인 통합 교통관제 업무협약 체결
- 영상·소통정보, 문자정보 등 교통정보 상호 연계 적극 협력하기로
-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도모 기대

< 사례 >

○○민자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연쇄 다중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 차로가 차단되어 신속한 대응 및 복구활동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.

도로공사에서는 문자정보(돌발·사고), 영상정보(CCTV) 및 소통정보를 종합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 도로이용자가 사고 상황을 미리 대비 및 우회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인근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(VMS)를 통해 교통상황을 전달한다.

또한,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은 직통전화(핫라인)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물적, 인적 자원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펼친다.

 **통합 교통관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조기에 수습되는 모습을 가정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 및 1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(이하 민자법인)은 9월 3일(목)에 「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.

-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민자법인 대표들과 실시한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.
- 한국도로공사의 재난·재해 대응역량을 민자법인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위기·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·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.
- 주요 협력사항은 ▲ 영상, 소통 및 문자 등 교통정보 상호 연계, ▲ 돌발상황 문자정보 즉시 제공 및 도로전광표지(VMS)를 통한 교통상황 전파 ▲ 도로공사 상황실과 민자법인 상황실 간 직통전화(핫라인) 구축, ▲ 고속도로 사고제보 번호 1588-2504 안내 등이다.
- 아울러,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한편, 도공-민자법인 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교통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이 고속도로 내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통상황을 적시에 전파·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 한다면서
- “국토부는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통합 교통관제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서지웅 사무관(☎044-201-3901),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오훈교 팀장(☎031-5170-601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『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』 업 무 협 약 서

본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(이하 “협약 당사자”)은 재정-민자, 민자-민자 『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』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업무 협약은 고속도로에서 재난, 재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“협약 당사자”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수습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 범위) ① “협약 당사자”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.

1. 대국민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정-민자간 교통정보(CCTV, 소통정보, 문자정보)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호 연계한다.
2. 정체, 사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, 즉시 문자정보를 입력하고, 돌발상황이 발생한 고속도로의 연계노선은 필요시 위 정보에 따라 도로전광표지(VMS)에 표출한다.
3. 재난, 재해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, 신속한 상황전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상황실과 민자법인 상황실간 핫라인을 즉시 구축하고, 인적·물적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한다.
4. 고속도로 사고제보 번호 등은 1588-2504로 안내한다.
5.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통합교통관제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② 제 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 (이행)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 법적 강제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과 노력을 다한다.

제4조 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 이 협약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모두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 (비밀 유지) 협약 당사자는 협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은 본 협약 본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지 않으며, 이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1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9월 3일

국토교통부
도로국장 주 현 종

한국도로공사
교통본부장 김 경 일

경기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김 창 성

경수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박 종 혁

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(주)
대표이사 민 영 현

부산울산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김 병 희

상주영천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김 경 준

서울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강 태 구

서울북부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나 성 대

서울춘천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장 경 일

수도권서부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김 주 동

신공항하이웨이(주)
대표이사 전 영 봉

신대구부산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이 상 만

옥산오창고속도로(주)
서울문산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이 상 기

인천김포고속도로
대표이사 전 해 정

인천대교(주)
대표이사 유 인 준

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엄 범 용

제이서해안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오 혁 수

제이영동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윤 민 학

천안논산고속도로(주)
대표이사 이 선 관